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민속의료 현황과 지역적 특징*

-지역에 따른 질환과 민속의료의 사용 재료를 중심으로

김형우·이인혜·강영경·장장식·한지원·이도정**

- I. 서론
-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III. 서해 5도 주민의 질환과 치료법
- IV. 서해 5도에서 민속의료에 사용되는 재료
- V. 서해 5도 민속의료 지식의 특징과 치료과정
- VI.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지역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민속의료의 현황을 정리하고 지리적 생태적, 문화적 특징에 따라 분석하였다. 민속의료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질병 및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전승하여 온 예방 및 치료체계로, 이 글에서는 약물적, 물리적, 주술적 요법으로 구분하였다. 서해 5도 지역은 기독교의 이른 유입으로 인하여 주술적 요법의 수는 다른 두 요법에 비해 수가 적다. 이 글에서는 지역에서 빈번하

* 본 논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13년 진행된 과제, ‘민간요법발굴조사 - 경기 서해안지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김형우(안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인혜(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강영경(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장장식(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한지원(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이도정(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게 발생하는 질환을 정리 및 분석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육지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 치료법 및 재료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서 민속의료 지식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주제어 : 서해5도, 경기서해 도서지역, 민속의료, 민간요법

I. 서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질병 및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전승하여 온 예방 및 치료체계는 일반적으로 민속의료(folk medicine or ethno-medicine)라 정의되며,¹⁾ 여기에는 의료기술과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금기, 의례 등 다양한 문화적 실천 양식도 포함된다. 그런데 인간이 필연적으로 그가 거주하는 생태적 환경과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민속의료에 대한 연구는 의료기술 및 문화적 실천양식과 동시에 인간과 주변 생태적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속의료에 대한 연구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실천양식에 대한 문화적, 생태적인 연구로도 볼 수 있다.

민속의료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인류학과 민속학을 비롯하여, 역사학, 한의학 등 다방면²⁾에서 시도되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하나는 인간 신체의 병리적 현상을 질문하고 그에 대응하는 치료법을 알아내는 문답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 개인의 질병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치유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대

1) 김성례, 『한국농촌의 전통의료문화와 그 변화의 수용』, 6쪽.

2) 민속학에서는 이재근(1975)과 박경용(2008, 2012 등)이 동해안 지방의 민속의료와 민속의료의 전승유형을 연구하였다. 인류학에서는 김태우(2012)가 의료인류학의 관점에서 한의학의 진단과 환자들의 질병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역사학에서는 주로 과학사나 문화사, 보건사와 연관 지어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신동원(2004)은 조선시대의 의서를 분석하여 한국 전통의학의 생명윤리를 보고자 하였다. 한의학에서는 대체요법, 민간요법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정유석 등(1998)은 고혈압 환자가 민간요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병을 다스리는 것의 효험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적인 사례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971-1981)』로, 이 보고서에는 각 지역의 민속의료가 조사되어 있다. 이 작업의 연장선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민속종합보고서 26: 민간의약』(1996)을 발간하였으며, 여기에는 조상들이 생활하며 각종 질환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법과 약의 조제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 질병에 대한 치료법, 예방법, 퇴치법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과거의 민간요법이 현재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도시와 농촌의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치료방법을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문답 바깥의 상황, 즉, 어떠한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치료법이 마련되는지 알기 힘들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질병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후자의 방식은 주로 특정 질병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그 치료행위에 중점을 두어, 실천과 전승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살피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필영은 충남 부여에서 ‘단’이라 불리는 개인의 피부병이 마을공동체의 치병의례인, ‘단잡기’를 통해 치료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³⁾ 또한 박경용은 질병과 치료법을 전승하는 개인, 채약인⁴⁾이나 한의사⁵⁾ 등 의료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직업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경용은 민속의료를 자가치유와 관련지식의 사회적 유통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그 실천과 전승의 메커니즘이 개인과 가족, 이웃 간의 일상적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⁶⁾ 특히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일수록 개인의 생애 속에 깊이 각인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생애사적 맥락에서 민속의료가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의서나 기타 텍스트 중심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그 지속과 변화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가치를 가질 것이라 주장하였다.⁷⁾

3) 이필영, 『개인의 피부병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치병의례』, 197-223쪽.

4) 박경용, 『채약(採藥)민속과 민간의료-대구,경북지역 채약인(採藥人)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39-73쪽.

5) 박경용, 『원로 한의사의 의료적 실천과 문화적 함의』, 237-269쪽.

6) 박경용, 『산청(山淸)지역 민간요법의 실재와 전승양상』, 229-268쪽.

7) 박경용, 『생애사적 맥락을 통해 본 전통지식으로서의 민간요법: 단절과 변화, 지속의 메커니즘』, 223-262쪽.

위의 연구는 민속의료를 전승주체와, 그 전승주체를 둘러싼 가족 및 마을과 지역공동체 등 여러 차원을 포함하며, 따라서 아픔과 치유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민속의료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학적 원인으로 인하여 아픔과 질환이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명명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는지가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계가 발생한다. 이는 병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생태적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분석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야기한다. 따라서 그 생태적 환경이 의료환경에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므로, 전자와 후자의 연구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민속의료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을 수집한 후 생태적인 분석과 문화적인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의미를 둔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물(natural products)은 오랫동안 음식, 향수, 안료 그리고 약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육상의 식물들은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전통의학(traditional medicine)이나 민속의료(folk medicine)의 주요한 재료로 사용되었으며⁸⁾ 이는 현대에도 지속되어 1996년 미국 생명과학협회(American Institute of Biological Sciences) 저널 바이오사이언스(BioScience)는 판매 중인 천연의약품 중 25%가 육상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해양천연물(marine natural products)을 민속의료에 사용한 사례에 대한 보고는 수가 적으며, 한국에서도 육지에서 육상식물을 사용한 사례에 비하여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연구와 민속의료에 해양천연물을 이용한 사례보고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적다. 예를 들어, 이재곤은 경북 동해안 지방의 민속의료에 대

8) Joffe S·Thomas R. "Phytochemicals: a renewable global resource", pp.697-700.

한 연구자료를 1973년부터 1976년까지 매해 『한국민속학』에 게재하였고 권이구와 강지현이 울릉도에서 울릉도민의 생활과 그들의 질병 및 민간요법, 그리고 1차적 의료체계를 연구하였으나,⁹⁾ 이들의 사례 외에 해안가 또는 도서지역에서 민속의료를 연구한 사례는 적다. 또한 전경수는 진도의 민속질병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나, 1개 질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포괄적인 현상을 보기 어려웠다.¹⁰⁾

바다는 ‘생명의 기원이자 어머니’로 일컬어지고, 또한 해양의 넓이는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지구에 서식하는 전체 동물의 약 80%가 바다생물이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것은 1% 미만이다.¹¹⁾ 또한 바다의 환경은 북극해로부터 열수분출공(hydrothermal vent)에 이르기까지 온도, 수압, 영양적으로 범위가 다양하여, 미생물로부터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생물학적 다양성(biodiversity)을 보장한다. 따라서 바다를 주된 생활 터전으로 삼은 도서지역과 이곳에서 해양천연물을 치유에 이용한 사례 역시 육상식물을 이용한 사례만큼이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육지로부터 떨어진 서해 5도 지역의 민속의료를 기술함으로써 민속의료 연구의 폭을 좀 더 넓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한 과제, ‘민간요법 발굴조사 - 경기서해안 도서지역’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속의료 및 민간요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도서지역은 본고에서 다루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외에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주문도, 불음도, 신도, 시도, 덕적도, 자월도, 영흥도이다. 이 13개 섬을 지리적 근접도에 따라 서해5도 지역(백령도, 대청도, 연평도)과 강화도와 인근 섬 지역(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주문도, 불음도), 경기 남부 섬 지역(영흥도, 신도, 시도, 덕적도, 자월도)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고는 그 중 첫 번째 지역인 서해 5도 지역의 민속의료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은 서해5도 중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로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9) 권이구·강지현, 『울릉도민의 1 차적 의료체계와 민간요법』, 315-331쪽.

10) 전경수, 『서남해 도서지역의 풍토병 : 의료인류학적 접근』, 275-280쪽.

11) Carte, Brad. K., “Biomedica Potential of Marine Natural Products : Marine organisms are yielding novel molecules for use in basic research and medical applications”, pp.271-286.

역시 웅진군에 속한다. 이들 도서는 북한의 황해도 장연군, 웅진군, 해주시, 연백군과 접하고 있다. 백령도와 대청도는 각각 인천에서 서북쪽으로 228.8km, 211km 떨어져 있어 쾌속선으로 편도 4시간이 소요되나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그 이상이다. 연평도는 인천에서 서북쪽으로 122km 떨어져 편도 2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들 도서 지역에 바다의 날씨 변화 등으로 항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1> 서해도 지도

각 섬의 면적은 백령도가 속한 백령면이 50.98km²로 가장 면적이 넓으며, 대청도가 속한 대청면이 15.56km², 연평도가 속한 연평면이 7.28km²로 가장 좁다. 각 면의 인구는 백령면이 2,502가구 5,052명, 대청면이 601가구 1,244명, 연평면이 941가구, 1772명이다.¹²⁾ 그러나 각 섬에 해병대 등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섬에 거주하는 인원은 집계된 수치를 상회한다.

육지로부터 떨어진 섬이나, 생업은 각각 차이가 있다. 백령도의 경우 섬이 소속된 웅진군의 미곡 생산량 4,744 메트릭톤 중 절반에 이르는 2,699 메트릭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하수오, 짜주아리약쑥과 같은 약용작물, 참깨와 같은 유지작물 등을 생산한다. 그러나 대청도와 연평도의 경우, 백령도의 미곡 생산량 중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2 메트릭톤, 105 메트릭톤을 생산하고 있어 섬 내에서 자급자족 될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¹³⁾ 수산업의 경우 연평도가 922가구, 1064명이 고

12) 웅진군 인구 기본현황(2011년 12월 기준). <http://www.ongjin.go.kr>.

13) 웅진군 농업기술센터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재배현황 참조(2013년 1월 기준).

용 또는 피고용 형태로 관계하고 있어 높은 종사율을 보인다. 백령도는 341가구, 692명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청도는 364가구, 581명이 종사한다. 전체 인구 대비 수산업 종사 비율로 보았을 때, 연평도가 가장 높은 종사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대청도, 백령도 순이다. 농업과 수산업 외에 관광객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과 유흥업, 요식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젓갈 등을 만드는 식품가공업, 염전과 같은 광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보건의료환경으로 백령도에는 백령병원(구 김안드레아병원, 백령적십자병원, 백령길병원)과 약국 1곳, 매약상 1곳과 총 3곳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있으며, 대청면에는 대청도와 소청도 각 1곳씩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있다. 연평도에는 보건소 1곳이 있다. 각 병원과 보건지소에는 전문과목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반면 보건진료소에는 별정직 공무원인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¹⁴⁾ 2010년 기준 백령도의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2명, 대청도에는 4명, 연평도에는 4명이 있다.¹⁵⁾ 섬 안에 위치한 병원과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육지거점병원인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닥터헬기로 주민들을 수송하여 치료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는 2013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연평도 연평리와 남부리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6명을 인터뷰하여 202건의 치료방법을 채록하였다. 2차는 2013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백령도 남포리와 진포리에서, 대청도 대청 1리와 4리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19명(백령도 8명, 대청도 11명)을 인터뷰하여 각각 244건, 110건의 치료방법을 채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섭외는 각 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의 중재로 진행되었으며, 섭외조건은 각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60세 이상의 성인이었다. 그중에서 민속의료를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시술하거나 시술하였던

<http://www.ongjin.go.kr/agriculture/>

14) 인천신문. 2009. 8. 3.

15) 웅진군지편찬위원회, 『웅진군지』, 인천광역시 웅진군, 2010.

‘주부’¹⁶⁾의 자식일 경우에는 인터뷰 대상자의 자택에서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비록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주부는 아니었지만 시술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룹인터뷰를 진행, 면담 중 검토를 통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직접 의료행위를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이 개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 안에서 주로 행해졌던 것이라 가정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해당 지역에서 전승되는 동·식물, 광물 등에 대한 생태적 지식은 병을 치료하는 사회문화적 기제와 함께 민속의료 활동에 동원되며, 따라서 인터뷰의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람들(주로 가족)의 생애사 속에서 앓았던 질병을 질문한 후 그에 대한 치료법을 질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질병의 지역적인 명칭 및 진단법을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어떠한 질병/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질병/질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민속의료 활동에 동원되는 동·식물, 광물 자원의 채취에 대한 기술 및 지식의 영역으로, 이는 약이 되는 생물의 식별방법, 서식장소와 조건, 채취시기와 그 방법,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다. 세 번째는, 채취된 약용 동·식물의 가공방법 및 가공 과정에 동원되는, 또는 침이나 뜸과 같은 도구에 대한 질문이다. 네 번째는, 만들어진 약, 또는 치료행위를 하였을 때 효과에 대한 것으로 질병 경험에 대한 서사를 포함한다.

위의 인터뷰 항목들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기반하고 있는 생태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민속의료가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통적인 지역지식(local knowledge)의 형성과 전승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더 나아가 도서 지역의 의료생활을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16)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침과 뜸을 놓고 약을 처방하였던 의료인을 ‘주부’라 일컫는다.

Ⅲ. 서해 5도 주민의 질환과 치료법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에서는 총 63개의 질환과 542건의 치료사례가 수집되었다(표 1). 이 중에서 치료방식에 따라 재료를 가공하여 가루나 액체, 연고 등 약의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약물요법, 침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하는 마사지 등의 물리적 요법, 그리고 푸닥거리를

<표 1> 서해 5도 질환명 및 치료사례

질환명(지역명칭)	치료사례 (건수)	질환명(지역명칭)	치료사례 (건수)
피 나는 상처	28	배탈이 났을 때	17
깊은 상처	17	설사할 때	9
찢린 상처	12	번비에 걸렸을 때	6
뻘 데	10	가슴앓이 할 때	2
데인 상처(화상)	15	뺨에 앓을 때	4
얼음 썬데(동상)	11	황달(노랑병)에 걸렸을 때	5
담 걸린 데(근육, 관절)	35	술을 많이 마셔 병이 났을 때	1
벌레 물린 데(모기, 벌, 지네 등)	13	오줌소태	19
개나 뱀에 물린 데	12	혈압이 높을 때	10
두드러기 난 데	21	아기가 경기를 일으켰을 때	9
땀띠 난 데	14	풍 맛았을 때(중풍, 구원아사)	27
웃으르데	7	아기를 못 가질 때	10
피부 가려운데	9	아이받기	3
무좀 및 부스럼	6	출산 후 태가 나오지 않을 때	3
사마귀, 티눈, 쥐젖	7	산후조리	10
귀에서 진물이 나올 때	8	젖이 부족할 때	6
눈병	6	젓몸살 할 때	7
삼선데	16	아기가 침을 흘릴 때	5
눈 다래끼	8	갓난아이의 태열을 없애는 데	2
눈에 먼지가 들어갔을 때	4	목소리를 좋게 하는 데	1
이가 아플 때	11	머리카락 나게 하는 데	1
학질(말라리아)	7	정력 강화	1
홍역	5	면역력강화	1
수두	4	딸꾹질 멈추게 하는 데	1
볼거리	2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1
결핵	9	과상품을 예방 할 때	1
감기	14	연탄가스 중독을 낮게 하는 데	2
해소(천식)	25	상문살로 아픈 것을 낮게 하는 데	1
인후통 및 편도선	4	평소 몸을 보신하는데	10
(만성) 녹막염	2	소가 체했을 때	2
(만성) 맹장염	1	소 멩에 썩은 데에 고름이 찻을 때	3
소화가 되지 않을 때	23	동물 전염병이 들 때 예방	1
총 63개의 질환	547		

나 노구메를 하는 주술적 요법으로 나누었다. 약물요법에는 총 157가지의 약초 및 해양 생물이 사용되었으며 3개 도서에서 360건의 치료사례가 수집되었다. 물리적 요법에서는 42가지의 치료도구 및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3개 도서에서 168건의 치료사례가 수집되었다. 주술적 요법에서는 10가지의 치료방식이 수집되었으며 19건의 치료사례가 수집되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2> 서해 5도 약물요법 및 치료 사례

치료재료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총합
간장 (조선간장)		1	2	3
감나무 잎	1			1
감자	6	2	5	13
감공풀			1	1
갑오징어 뼈	1		3	4
개구리 뒷다리			2	2
개두릅나무	1			1
개똥			1	1
개털	2	1	2	5
갱구			2	2
검댕		1		1
고동	1			1
고들빼기	1			1
고양이		1		1
고추가루		1		1
구렁이	1	4	2	7
구절초			1	1
굴껍질				0
까치 굴	1			1
꿀	1	1	1	3
나팔꽃	1			1
녹두			1	1
늪은 호박	1	1		2
닭백숙	1			1
닭 삶은 물			1	1
닭껍데기		1		1
닭피		1		1
담배 잎	3	2	3	8
대마(삼베)잎	1	2		3
대과씨	1		1	2
맹맹이덩굴		1		1
더덕	1			1

치료재료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총합
도둑놈의 지팡이		1		1
도라지	3			3
동치미 국물		1		1
돼지비계		1	1	2
돼지족발			1	1
돼지주둥이			1	1
돼지풀	1			1
된장	2	2	3	7
두릅나무	1			1
등글래 뿌리			2	2
땅파리	2	2	1	5
마디풀(마도풀)	3	1		4
막걸리	1			1
말린 대추	1			1
말미갈			1	1
먼지			2	2
메밀대	1			1
메좁쌀밥	1			1
모유			2	2
목대		2	1	3
무	1	1	8	10
미꾸라지			1	1
미역	2			2
민물가재			1	1
밀가루	2		2	4
박씨			1	1
밤(열매)			1	1
밤나무 이파리		2		2
밥		1	1	2
배		1		1
백반	2			2
백설기 떡			1	1
뱀(일반)	3		3	6
뱀알	1			1
보신탕(개)			1	1
비료		3		3
빨래비누			1	1
뽕나무 뿌리			1	1
뽕나무 잎	1			1
사람 칠	1	1		2
산초(제피)		2	2	4
살모사			1	1
삶은 계란 노른자	1			1
삼백초	1			1
삼지구엽초	4			4

치료재료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총합
삼주씩			1	1
삼죽뿌리	3		1	4
새우젓	1		3	4
생 굴	1			1
생강	1			1
생다시마	2			2
선인장(백년초)	2		3	5
선인장열매 효소	1			1
설거지 한 물			1	1
설탕물				0
소 눈알	1			1
소금		5	10	15
소나무 잎	1		1	2
소똥	1			1
소리쟁이 뿌리			1	1
소주		2	1	3
송진		1		1
시육지(상괭이 기름)			1	1
신문지 태운기름		2		2
실지렁이			1	1
썰뜯물			1	1
쭈(일반)	13	2		15
알로에	1			1
애호박	1			1
앵두		1		1
약쭈	1			1
양귀비	7	5	7	19
양매추	1			1
양초나무		1		1
양파 껍데기	1			1
양파즙			1	1
엿(수수, 무, 말미잘, 오미자)	3	1	3	7
오가피 나무 열매	1			1
오미자 효소	1			1
오이 푼지	1			1
오줌	1	1		2
옥수수수염	1		2	3
으름나무 줄기	1			1
은행 열매			1	1
익모초	4	1	7	12
인분거른물		1	3	4
인주		1		1
임진쭈	3		2	5
잉어	1			1

치료재료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총합
잔대 짝			1	1
장군목 열매(잘목열매)		1		1
재		1		1
짓갈 (일반)			1	1
조 껍질			1	1
조뱅이	3	2		5
쥐똥			1	1
지초뿌리(지치)		2		2
진달래 뿌리			2	2
질경이	1		1	2
쪽파 뿌리			1	1
참기름		2	4	6
참외 꼭지			1	1
천남생 뿌리		1	1	2
천마	1			1
청개구리			1	1
청주				0
총 닦는 기름	2			2
취나물			1	1
치약	1			1
카바이트			1	1
콩깍지	1		1	2
콩나물			1	1
토마토			1	1
피뿌리	1	1		2
팔알	1			1
피마자 기름	4	1		5
피마자 열매		1		1
하늘타리	1		2	3
히수오	3			3
해삼	1			1
향나무 가지	1			1
홍화씨	1			1
황기				0
휘발유	1	1	1	3
흙		1		1
총합	139	79	142	360

<표 3> 서해5도 물리적 요법 및 치료 사례

치료도구 및 방법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총계
계란으로 문지르기			1	1
나무뿔박으로 문지르기		1		1
남편양말(버선)로 문지르기		1	1	2
노루발로 환부 때리기		1		1
늦쇠 손가락 달구어 대기		1	4	5
눈썹뽑기	1		1	2
달군 돌 대고 있기	1		2	3
대나무 달구어 환부에 대기	1			1
대나무로 환부 고정	1	1		2
대추나무 가지로 환부 고정	2			2
따뜻한 물수건으로 문지르기			4	4
뜸	10	3		13
머리카락으로 환부 감기	2			2
바가지로 누르기	1			1
바가지로 문지르기			1	1
부황	9		2	11
사혈	13			13
살아있는 쥐머느리 환부에 놓고 형겁으로 감싸기	2			2
성냥불로 환부 소독하기			1	1
소 창자에 환부 넣기			1	1
소똥에 환부 넣기			2	2
손 마사지	3		2	5
수수빗자루로 환부 쓸기			1	1
실로 환부 감기		1	1	2
쑥 훈증(요강 사용)	6		4	10
연장으로 환부 때려 피 뽑기	1	1	1	3
일광욕		1		1
입에 물 물고 숨 쉬지 않기	1			1
자석으로 환부 문지르기		1		1
집골			1	1
지압	3			3
채 띄우고 오줌 누기			1	1
침으로 환부에 구멍 뚫기	2		1	3
침 찌기		1		1
침 놓기	17	2	6	25
콩자루에 환부 넣기	3	2	2	7
팔알로 환부 문지르기	1	1	1	3
해수욕하기	5	3	5	13
혀로 환부 핥기			2	2
환부를 소금물로 담가내기	6	5	2	13
환부에 쫓농 떨어뜨리기	1			1
총 합	92	26	50	168

<표 4> 서해 5도 치료법 비교

	약물요법	물리적 요법	주술적 요법	총합
백령도	139	92	5	236
대청도	79	26	5	110
연평도	142	50	9	201

<표 4>에 따르면 백령도에서는 수집된 전체 236건의 사례 가운데, 약물요법은 139건, 물리적 요법은 92건, 주술적 요법은 5건이 수집되었다. 대청도에서는 수집된 110건의 사례 가운데 약물요법은 79건, 물리적 요법은 26건, 주술적 요법은 5건이었으며, 연평도에서는 전체 201건 가운데 약물요법은 142건, 물리적 요법은 50건, 주술적 요법은 9건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요법의 각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약물요법과 물리적 요법에 비하여 주술적 요법의 비중이 매우 적는데, 이는 해당 연구 지역의 종교 문화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의 종교는 천주교 및 개신교를 포함하는 기독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섬의 기독교 전파는 조선 말엽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민의 약 80%가 넘는 수가 기독교(천주교 및 개신교) 신자이다.¹⁷⁾ 백령도의 경우 개

17) 웅진군지편찬위원회, 『웅진군지』, 웅진군청, 1989, 1038-1040쪽. “백령도의 개신교 전파는 조선 말 서양 세력의 등장과 함께 전개되었다. 1816년 맥스웰(Murrey Maxwell)대령이 이끌던 선단에 클리포드(H.J.Clifford)해군 대위가 자비로 승선하여 각 지역의 언어를 수집하고 선교 가능성을 탐사하기 위해 백령도에 정박하여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 후 1832년 칼 귀츨라프(Karl F.A.Gutzlaff)가 영국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동인도 회사 무역선에 통역 겸 선상 의사로 승선하여 개신교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조선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그는 클리포드의 비망록을 기초로 하여 백령도에 정박해 있으면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898년 백령도 진의 침사 자문역으로 참사 벼슬을 지냈던 허득이 복음의 씨앗을 받고 그 곳에 유배 되어온 김성진, 황학성, 장지영 등과 함께 한학 서당에 증화동교회(백령면 진촌리 소재)를 설립하게 되었다. 연평도도 1936년에 예장 황해도회장이었던 김용순 목사가 연평도에 개척전도자로 최성준 전도사를 파송함으로써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천주교 전파의 경우에도 백령도는 이미 1845년부터 1880년까지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해 해로 입국 거점으로 역할을 하였다. 1913년경부터 당시 백령면장이었던 조상현이 포교하였던 적이 있었고, 그 후 1944년에 황해도 장연읍에서 시집은 김양겸이 백령도로 입도하면서 포교가 본격

신교 교회가 총 11곳, 천주교 성당이 공소를 포함하여 11곳이 있다. 그러나 절은 해병대 부대 안의 1곳과 외지인들이 다니는 1980년대 후반에 생긴 1곳을 제외하면 없으며, 여타 종교를 섬기는 장소는 없으며 무속의 경우도 외지에서 치성을 드리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백령도에 터를 잡고 무업을 행하는 경우는 없다. 대청도의 경우에도 개신교 교회가 총 4곳, 천주교 성당 및 공소가 4곳이나 절과 무속 등 다른 종교는 없다. 연평도 역시 개신교 교회가 2곳, 천주교 성당이 1곳 있지만 절과 무속의 흔적은 없다. 임경업 장군을 모신 충민사에도 당지기가 있어 가벼운 무업을 행했다고 전해지나 당지기 사망 이후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은 없으며, 연평도 풍어제를 할 때에도 인천에서 무당을 초빙한다.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천주교 또는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주술적 요법에 대하여 일종의 ‘미신’ 또는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례 1> 2013년 7월 13일 연평도

정보제공자 : 어○임(여. 1941년생. 천주교.), 신○철(남. 1940년생. 천주교.)

어○임 : 이렇게 그냥 삼이 썼으니까 그냥 떠오르는 그냥 일월 선생님 이걸 좀 낮게 해달라고.

신○철 : 성당 댕기면서두 그랬다니까.

어○임 : 나는 교회 열심히 댕기는 사람이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사례 2> 2013년 7월 23일 백령도

정보제공자 : 최○후(남. 1933년생. 교회장로.)

최○후 : 눈에 다래끼 나며는, 그거 여기 발바닥에 글을 쓰는 거 그거. 근데 그거는 미신.

조사자 : 그거 이야기 해주세요.

최○후 : 아니 그게 뭐,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저. 뭐. 평천하라고 발바닥에.

<사례 3> 2013년 7월 25일 대청도

정보제공자 : 백○남(여. 1941년생. 교회권사.), 최○원(남. 1933년생. 교회장

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로.), 김○숙(남. 1945년생. 교회장로.)

조사자 : 혹시 수두 앓았던 아이들은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약이다.

백○남 : (한참 있다가) 그때는 밥해서 내놓는다고 하고 그랬으니까.

조사자 : 밥을 어떻게 하신다구요?

최○원 : 그거 미신을.

백○남 : 옛날의 풍습이라고 하니까.

김○숙 :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옛날에는 다들 그러고 살았지.

위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서양의료의 힘을 빌려도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병원에서 받은 약이 너무 독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속의료에 의존하거나 과거의 치료 방식을 회상한다. 이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앓거나 앓았고, 지역적 특색을 볼 수 있는 사례를 꼽으면, 해수·천식(25건), 중풍·구원아사(27건)¹⁸⁾, 삼(16건)¹⁹⁾, 담 결림(35건), 출산 및 산후조리(39건)가 있다.

1. 해수(咳嗽病, consumption)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의 주민들이 자주 앓는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해수’가 있다. 섬의 주민들은 ‘해수’라는 질환의 증상은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고 목에서 가래가 끓으며 숨이 찬 것으로 설명하며, ‘해소’라고 일컫기도 하고 ‘천식’이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해수’라고 명명한다.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에 ‘해수’가 많은 원인으로 주민들은 섬의 기후를 꼽았다.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의 특성 상,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일부 볼 수 있다. 백령도와 인천의 기후를 비교하여 볼 때,²⁰⁾ 인천보다 백령

18) 중풍과 구원아사는 다른 병이나 지역주민들은 같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어린이가 일으키는 ‘경기’ 역시 ‘경풍’이라는 말로 표현되며, 중풍과 같은 범주로 설명된다.

19) 순 우리말로 ‘눈에 삼이 서다.’고 말한다. 눈의 각막이나 결막에 흰색이나 붉은 색의 작은 수포(phlyctenulae)가 생기는 질환이다.

20) 기상청 2012년 8월 월보, 2012년 연보 참조. 대청도와 연평도는 기상관측소의

도가 연평균기온이 약 13℃가량 차이가 나며,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도 2.7℃가 낮다. 이는 백령도가 바다의 비열로 인하여 인천에 비하여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온화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평균상대습도는 바다의 영향으로 70%로 높은 편이며 인천의 69%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바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분으로 안개를 꼽을 수 있다. 인천은 한국에서 안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나, 백령도의 2012년 안개일수는 인천의 29일에 비해 약 3.5배인 104일에 달한다. 이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결과로, 4월부터 7월까지 석 달에 가깝게 안개가 지속되어 선박이 자주 결항되거나 회항하기도 한다.

바람 역시 인천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겨울에는 북서풍이 강하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대개 북서풍이 좀 더 우세하여 연중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2년 연평균 풍속은 백령도가 46m/s, 인천이 32m/s로 약 1.5배 강하며, 강한 바람은 해상에 높은 파도를 일으켜 선박의 운항에 불편을 준다. 또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황사현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며, 빈도수도 많고 지속시간도 길다.

위와 같은 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지에는 ‘해수’로 고생하였거나 고생하는 사람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많으며, 이것을 고치기 위한 여러 방법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해수’와 관련된 민속의료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백령도

- 숨이 찰 때에는 도라지 달인 물을 마신다.
- 기침할 때에는 꿀을 물에 타서 마신다.
- 선인장 열매와 설탕을 일대일로 섞어 효소로 만들어 먹는다.
- 오미자와 설탕을 일대일로 섞어 효소로 만들어 먹는다.
- 도라지와 황기를 같이 달인 물을 마신다.
- 더덕을 말려 잘게 썬 다음 투명하게 될 때 까지 꿀에 재어 놓았다가 먹는다.

부재로 자료가 없어 인천시와 백령도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 가을에 생 무를 납작하게 썰어 설탕 또는 꿀에 3일 동안 실온에 재워 놓으면 물이 나온다. 그 물을 따뜻하게 데워 한 모금씩 매일 마신다.

2) 대청도

- ‘잘목’²¹⁾나무 열매를 가을에 채취하여 엿을 만들어 기침이 나올 때 마다 먹는다.
- 무로 엿을 고아서 상시 먹으면 숨 찬 증상이 나아진다.

3) 연평도

-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을 때 ‘게루기썩’²²⁾을 끓여 그 물을 상시 복용한다. 끓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잔대썩이 자박자박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끓인다.
-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을 때 무로 엿을 만들어 먹는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무를 채를 썰어 많은 양을 솥에 넣고 끓인다. 이 과정에서 엿기름을 넣어 엿을 만든다. 엿이 다 만들어지기 직전에 다시 무를 썰어 넣는다.
-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을 때 둥굴레 뿌리로 엿을 고아 먹는다. 둥굴

21) 장구땀나무(*Grewia biloba* var. *parviflora*)는 ‘잘먹기나무’라고도 불리며, 대청도에 서는 ‘잘목나무’라 불린다. 바닷가 산기슭이나 내륙의 산과 들에서 자란다. 열매는 둥글거나 장구 모양의 장과(漿果)로서 지름 6~12mm이고 노란색이거나 노란 빛을 띤 붉은색이며 10월에 익는다. 종자는 1~4개 들어 있다. 동의보감에 왜왜 권(娃娃拳)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소화가 안 될 때나 붕대(崩帶), 소아의 감적(疳積)을 치료할 때 뿌리, 줄기, 잎을 사용 한다고 되어 있다.

22) ‘게루기’는 ‘게로기’의 북한말인데 이는 연평도가 황해도와 가까워 언어상으로 영향을 받아 나온 말로 보인다. ‘게로기’는 모싯대(*Adenophora remotiflora*)로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높이가 1미터 정도이고 뿌리는 굵으며, 잎은 어긋나고 심장 모양 또는 넓은 피침 모양으로 톱니가 있다. 8~9월에 종 모양의 자주색 꽃이 원추(圓錐) 화서로 핀다. 뿌리는 해독제, 거담제로 쓰고 어린잎과 함께 식용한다. 그늘진 산지에 자라는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한다. 그러나 연평도에서 ‘게루기’는 ‘모싯대’가 아니라 ‘잔대(*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를 가리킨다. 잔대는 연한 부분과 뿌리를 식용한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사삼이라고 하며 진해·거담·해열·강장·배농제로 사용한다.

레뿌리를 말려 두었다가 엿기름을 넣어 엿을 만든다.

- 시루떡을 만들 때 무를 채로 썰어 넣어 만들어 먹으면 해소가 나아진다.
- 은행열매와 말미잘로 엿을 만들어 먹으면 해소가 나아진다.
- 유리그릇에 콩나물과 설탕을 넣어 이불 속에 따뜻하게 묻어두면 콩나물이 녹아 실오라기처럼 되고 콩나물 물이 생긴다. 그 물을 한 모금씩 장기간 복용하면 해소가 나아진다.

2. 중풍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의 경우 중풍에 대한 민속의료 치료사례가 있었으며, 마흔이 되지 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져 고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풍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민들은 짠 음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대청도와 연평도의 경우 경지면적이 적어 식량생산이 매우 적어 수산업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상하기 쉬운 수산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젓갈이나 염장을 만들어 놓는다. 백령도의 경우 경지면적이 넓으나 이는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사곶 해안을 간척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전에는 경지면적이 많지 않았다고 하며, 식생활도 염장한 수산물 중심이었다고 한다. 특히 백령도의 경우 염전이 있고, 조리 시 까나리 액젓 사용이 많아 음식이 짠 것이 특징이다. 흔히 중풍의 원인이 된다고 일컬어지는 고혈압은 보건소가 들어와 측정하기 전에는 전문적 지식과 장비가 없는 개인이 알 수 없는 질환이었으며,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중풍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중풍과 구완아사로 나누어 수집할 수 있었는데, 중풍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구완아사도 포함시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민속치료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백령도

- 구완아사는 쓰러져서 20일 이내에 고쳐야 하는데, 얼굴이 비뚤어진 쪽으로 침을 놓는다.
- 구완아사는 하늘타리 열매²³⁾를 따뜻한 물에 묻혀 개어 환부에 붙이

면 좋아진다.

- 구완아사로 비뚤어진 얼굴을 돌아오게 하려면 대추나무 가지에 줄을 매어 돌아간 쪽의 반대쪽 귀에 걸어 돌아간 쪽을 잡아 당겨야 한다.
- 구완아사로 비뚤어진 얼굴을 돌아오게 하려면 까치골²⁴⁾을 으깨어 돌아간 쪽에 바른다. 돌아간 쪽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까치골을 닦아낸다. 너무 오래 바르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얼굴이 돌아갈 수 있다.
- 중풍으로 쓰러지면 정수리, 미간, 인중의 1/3지점, 턱 밑에 침을 놓는다. 또한 헛바닥 밑의 힘줄에 침을 놓아 사혈한다.
- 중풍으로 쓰러지면 양쪽 눈 밑, 광대뼈 아래, 입술 양쪽 피부를 꿰뚫어 잇몸에 침을 놓는다.
- 정수리에 땀을 3개월가량 뜨면 중풍이 오지 않는다.
- 관자놀이에 지압을 항상 해 주면 중풍이 오지 않는다.

2) 연평도

- 중풍이 와 신체의 한쪽이 마비되면 진달래 뿌리를 캐어 삶아 그 물을 한 컵씩 일주일 동안 마신다. 진달래 뿌리는 양달에 있는 것으로 캔다.
- 혈압을 떨어뜨리려면 양과 생즙을 내어 마신다.

23) 하늘타리 열매는 본초강목에서 과루(瓜藟)라 기록되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치료하고 안색을 좋게 하거나, 폐를 촉촉하게 하고 화기를 내리고 해소와 가래를 치료하며 인후를 부드럽게 한다. 또한 갈증을 멎게 하고 대장을 잘 통하게 하여 부스럼을 가라앉힌다. 또한 볶아서 사용하면 쇠약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을 치료하고 심장과 폐를 촉촉하게 하고 피를 토하는 증상, 대변에 피가 나오는 증상, 이질, 손과 얼굴이 트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4) 까치(*Pica pica japonica*)는 본초강목에 웅작육(雄鷓肉)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수까치의 고기를 뜻한다. 수까치 고기는 성질이 차서 소갈과 열이 뭉쳐 있는 것을 풀어주고 풍(風)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진 약재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삼’

‘삼’은 눈에 생기는 질환 중 하나로 다래끼나 눈병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된다. 보통 ‘눈에 삼이 서다.’고 말하는데, 눈의 각막이나 결막에 흰 색이나 붉은 색의 작은 수포(phlyctenulae)가 생기는 질환으로, 이 ‘삼’을 치료하는 것을 ‘삼잡기’라 일컫는다. ‘삼잡기’는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지방마다 약간씩 내용이 달라진다.²⁵⁾ 특히, 이 삼잡기는 개인이 집안의 물건을 치우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망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보인다. 주로 집의 아이의 눈에 삼이 서는데, 아이의 부모는 어찌할 줄 모르다가 지역의 나이 많은 ‘할머니’나 ‘아주머니’를 찾아가 치료방도를 구한다. 그러면 이 나이 많은 ‘할머니’는 눈에 삼이 섰다고 진단을 하고 아이의 부모는 며칠 동안 아이를 데려가 삼잡기를 한다. 그리고 이 삼 잡기의 대가로 쌀 등의 곡식을 얼마간 내어 준다.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에서는 주로 팔을 사용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백령도

- 눈에 삼이 섰을 때에는 잘못된 위치에 있는 물건을 치우면 낫는다.
- 눈에 삼이 섰을 때에는 동태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대문에

25) 예를 들어 충남 서산지방에서 전래되는 ‘삼’은 눈 다래끼는 속눈썹의 뿌리 부분에 있는 기름샘에 염증이 생기면서 고름이 발생하는 병으로, 이를 서산 지역에서는 ‘삼눈’ 또는 ‘다락지’라고도 일컬으며, 삼을 치료하는 방식을 ‘삼눈잡기’, ‘삼잡기’라 일컫는다. 고치는 방법은, 1) 손이 있는 날 집안에 못을 잘못 박으면 식구 중에 눈에 삼이 섰다고 여겼다. 그럴 경우 우선 못을 다시 뽑으면 삼눈 걸린 사람이 의외로 쉽게 낫는다고도 한다. 2) 다른 방법으로는 동쪽에 화상을 그려 붙이고, 그 그림의 눈구멍에 바늘을 꽂아 놓는다. 만약 이렇게 해도 차도가 없으면 삼을 잡는 사람을 별도로 불러서 잡는다. 환자의 눈 잔등이에서 삼눈을 바늘로 빼거나, 해가 뜨는 동쪽에 환자를 세우고 바깥지를 받치게 한 후 나이 수대로 팔을 눈에 비비며 빈다. 이때 눈에서 물이 바가지로 떨어지면 병이 낫는다고 여긴다(디지털 서산문화대전. <http://seosan.grandculture.net/>).

박는다. 못은 동태눈에 박는다.

- 눈에 삼이 섰을 때에는 실을 펜 바늘에 팔알을 꽂아 물이 담긴 사발로 떨어뜨린다. 팔알이 떨어질 때 물방울이 올라오면 삼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청도

- 눈에 삼이 서면 목 뒤에 침을 놓는다. 침을 놓아주는 사람을 ‘주부’라 불렀는데, 그 사람만 놓을 줄 알았다.
- 눈에 삼이 서면 옷이나 부지깅이 등 잘못 놓인 물건을 치우면 낫는다. 어떤 물건을 치울지는 삼을 잡는 사람이 알려준다. 삼을 잡는 사람은 대개 아주머니들이었다.
- 눈에 삼이 서면 팔알을 다리미로 다린 후 그것으로 눈알을 닦는다. 3일을 닦으면 삼이 없어진다.

3) 연평도

- 눈에 삼이 서면 당지기 할머니²⁶⁾를 찾아간다. 당지기 할머니가 당집(충민사) 문을 하루 중 첫 번째로 열기 전에 삼잡기를 진행한다. 삼이 선 사람을 아침 해를 보도록 세운 후 경을 외우며 팔알을 물그릇에 한 알씩 떨어뜨린다. 3-4일 진행하면 나았다.
- 삼을 잡을 때에는 물을 떠 놓은 바가지, 그리고 팔 한 움큼을 까만 형겅으로 싸서 준비한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삼이 선 사람을 해를 보고 앉혀 놓는다. “흠을 달아 흠삼이나, 돌을 달아 돌삼이나, 바람 따라 들어오는 바람 삼이나. 인간이 몰라서 일을 저질러 삼이 섰으니 떠오르는 일월성신님 삼을 낮게 해 주시오.”라고 주문을 외우며 팔을 쥔 형겅으로 눈을 문지른다. 눈을 문지르면 팔알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그때 팔알을 물을 떠 놓은 바가지에 떨어뜨리면 맺힌 물방울이 수면위로 올라온다. 하루에 1번씩 3회 반복하면 낫는다.

26) 연평도에는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사당인 ‘충민사’가 있다.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인천시에서 관리한다. 예전에는 충민사를 관리하는 당지기할머니가 있어 기도 하고 삼도 잡았다고 전한다.

4. ‘담’

‘담’은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기혈이 순조롭게 운행되지 않아서 장부의 진액이 일정 부위에 몰려 걸쭉하고 탁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서양의학에서는 근육통을 뜻하기도 한다.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에서 ‘담’은 ‘갑자기 등이나 허리, 어깨에 심한 통증과 함께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일컬으며 뻐 증상이나 신경통과는 구분 짓는다. ‘담’이 잘 생기는 원인으로 그물손질이나 발농사 등 몸을 구부리고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이라 하기도 하고, 서늘하고 습한 기후가 원인이라 꼽기도 한다. 담의 치료법은 식물을 채취 및 가공하여 약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주변의 환경을 이용한 물리적 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1) 백령도

- 담은 썩을 썩서 베보자기에 싸서 환부에 찜질을 하면 낫는다. 썩은 떡을 해 먹는 물썩, 못 먹는 개썩, 약으로 쓰는 약썩이 있는데 약썩을 사용한다. 약썩은 길가에 흔하게 있었고, 잎의 뒷면이 희다.

2) 대청도

- ‘조피나무’²⁷⁾의 어린 이파리나 열매로 물을 끓여 마신 후 땀을 내면 담이 낫는다.
- ‘천남생’²⁸⁾의 뿌리를 말려서 가루를 낸 후 물에 개어 알약을 지어서

27) ‘조피나무’는 ‘조피나무(*Zanthoxylum piperitum*)’의 백령도 지역명칭이다. 초피나무의 열매 껍질을 ‘제피’라 부르는데, 백령도에서는 제피를 김치를 담글 때 넣어 맛을 내기도 한다. 본초강목에는 촉로(蜀椒)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관절과 피부의 괴사된 조직을 없애고 한습(寒濕)으로 인하여 저리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며 하기(下氣)작용을 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머리가 새지 않으며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28) ‘천남생’은 ‘천남성(*Arisaema amurense* var. *serratum*)’의 대청도와 연평도의 지역명칭이다. 본초강목에는 풍사(風邪)의 침범으로 인하여 감각이 둔해지고 저린 증상을 치료하고, 담(痰)을 없애며 하기(下氣)작용을 한다. 담담한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복부에 단단하게 뭉친 것을 없애며 종기로 살이 붓는 것을 삭히고 여혈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다.

먹으면 담이 낫는다. 알 약을 짓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달이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담에 걸리면 말린 노루 발목으로 환부를 두들긴다. 노루 발목이 없으면 고라니 발목을 사용하기도 한다.

3) 연평도

- 담이 걸리면 바닷가의 돌을 주워와 아궁이의 재가 따뜻할 때 돌을 넣어 굽는다. 구운 돌을 수건에 싸서 환부에 댄다.
- 담이 걸리면 백설기를 만들어 뜨거울 때 환부에 댄다.
- 담이 걸리면 방바닥을 뜨겁게 한 후 소나무 잎을 열 단정도 깔아두고 그 위에 눕는다. 소나무 잎은 왜솔이 아니라 송편을 찌는, 잎이 두 개씩 나는 조선솔로 잎이 갓 난 것이어야 효과가 있다.
- 담이 걸리면 화장실에서 오래된 인분 위에 물을 받아 끓여 마시면 낫는다.
- 담이 걸리면 ‘천남생’ 뿌리를 얇게 썰어 말려 가루로 만든다. ‘천남생’ 가루를 밀가루와 섞어 칼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낫는다. 옛날 사약의 재료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목구멍이 아리므로 조심해야 한다.

5. 출산 및 산후조리

1960년에 종합병원이 설립되었던 백령도를 제외하고, 대청도와 연평도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던 까닭에 산파가 출산을 도왔다. 연평도에는 현재까지 산파를 하였던 주민이 생존해 있으며, 대청도를 포함하여 불임치료, 출산, 산후조리에 대한 민속의료 사례가 전승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불임치료에는 익모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에는 쑥을 많이 사용한다.

1) 백령도

- 산후조리 시 쑥을 달여 요강에 넣고 김을 쏘인다. 쑥은 약쑥을 사용하며 단오 전에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 산후조리 시 쑥을 찌서 배 보자기에 넣고 배에 감는다. 쑥은 약쑥을

사용하며 단오 전에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2) 대청도

- ‘양초나무’²⁹⁾ 잎을 달여서 마시면 임신을 돕는다.
- ‘육모초’³⁰⁾를 단오 이전에 채취하여 말려 달여서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 임신을 돕는다.
- 아이를 낳을 때 태반이 안 나오면 산파가 바가지의 등근 면이 산모의 배에 닿도록 산모 뒤에서 잡고 산모를 안고 누른다.
- 출산 후 몸이 부으면 늙은 호박을 술에 찌거나 달여서 그 물을 마신다.

3) 연평도

- ‘육모초’를 단오 이전에 채취하여 말려 가루를 낸 후 밀가루와 섞어 환을 지어 먹으면 임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임신 후에도 아기집을 보호한다. 임신 후 1-2개월 동안만 먹는다.
- 임신 후 하혈을 할 때 구절초 뿌리를 삶아서 그 물을 마신다.
- 출산을 할 때 아이가 거꾸로 나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자궁 안으로 손을 밀어 방향을 바꾼다. 산모가 힘을 줄 때마다 손을 넣어 발이 못 나오도록 집어넣으면 머리부터 나온다.
- 아이를 낳을 때 태반이 안 나오면 산모에게 탯줄을 밟게 한 후 약간 일어서게 시킨다. 그 때 산파가 뒤에서 산모의 배에 각지를 껴서 안은 후 배를 누르면서 산모가 일어나게 하면 태가 잘 나온다.
- 아이를 낳을 때 향문이 밀려나올 때에는 주먹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막거나, 산모가 발뒤꿈치로 향문 부위를 막고 앉도록 한다.
- 아이를 낳고 태반이 안 나온 지 오래되어 태반이 식으면 요강에 끓인 물을 부은 후 산모에게 훈증을 시킨다. 그동안 뒤에서 산파가 배를 계속 훑어 내리면 태반이 나온다.

29) ‘산부추(Allium thunbergii)’의 백령도 지역명칭.

30) ‘익모초(Leonurus sibiricus L)’의 지역명칭으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에서 모두 ‘육모초’로 통한다.

-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엄마의 첫 번째 젖을 탈지면에 적셔서 눈에 서너 번 문질러 준다.
- 갓난아이가 계속 눈곱이 낄 때에도 엄마의 젖을 탈지면에 적셔서 문질러 준다.
-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경기 방지를 위해 탈지면에 참기름을 적서 아이의 입 안을 닦아준다.

IV. 서해 5도에서 민속의료에 사용되는 재료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는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육지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질환의 치료법에 있어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같은 질환의 치료법에 있어 육지와 다른 치료법 및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사례들을 모아 분석한다.

1. 지혈 : ‘마도풀’,³¹⁾ ‘조뱅이’

날카로운 물건에 베여 피가 나는 경우의 답변으로 일반적으로 갑오징어 뼈를 갈아 나온 흰 가루를 환부에 발라 피를 멈추게 한다는 치료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백령도와 대청도 경우 갑오징어 뼈 분말을 지혈에 사용하기도 하나 ‘마도풀’과 ‘조뱅이(*Cephalonoplos segetum*)³²⁾’라는 식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효능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 ‘마도풀’의 경우 백령도에서는 지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종기나 손가락 끝에 종기가 생겨 고름이 드는 ‘생인손’에도 사용했다고 한다. 대청도에서는 지혈에 조

31) ‘마도풀’은 마디풀(*Polygonum aviculare* L.)의 백령도, 대청도의 지역명칭이다. 마디풀은 본초강목에 편축(蒹蓄)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식물의 마디 사이에는 가루가 들어 있고 종기, 치질 및 각종 부스럼을 치료하고 벌레를 죽이는 약효가 있다고 한다.

32) 조뱅이는 본초강목에 소계(小薊)라 기록되어 있다.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를 만들게 하고 갑작스러운 자궁출혈, 창칼에 의한 출혈, 피를 토하는 증상에 즙을 짜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소독이 잘 되지 않아 굼은 상처에는 질경이를 섞어서 고름을 빼내기도 한다.

마도풀이나 조뱅이와 같은 식물뿐만 아니라 ‘뒷박벌레’라 부르는 공벌레를 살아있는 채로 환부에 붙여 고름을 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 백령도

- 베어서 피가 나는 상처에는 조뱅이를 돌로 찢어 붙이면 피가 멈춘다.
- 베어서 피가 나는 상처에는 ‘마도풀’을 짓이겨 붙이면 피가 멈춘다.
- 종기를 앓을 때에는 ‘뒷박벌레’³³⁾ 살아있는 것을 잡아 환부 위에 올려두고, ‘마도풀’ 짓이긴 것으로 덮는다. 그 위를 비닐이나 헝겊으로 묶어 둔다. 하루 정도 지나면 고름이 빠진다.
- 생인손을 앓을 때에는 ‘뒷박벌레’ 살아있는 것을 잡아 환부 위에 올려두고, ‘마도풀’ 짓이긴 것으로 덮는다. 그 위에 비닐이나 헝겊으로 묶어 둔다. 하루 정도 지나면 고름이 빠진다.

2) 대청도

- ‘조뱅이’와 ‘길쭉구이’³⁴⁾를 섞어서 짓이겨 붙이면 굼은 상처가 금방 낫는다.

33) ‘뒷박벌레’는 공벌레(Armadillidium vulgare)의 백령도 지역명칭이다.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일부 지역에서 보이는 지방병, 화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 화기는 단독이나 생인손과 구분되는 병으로 원인없이 붓고 열감이 있으면서 찌르는 듯이 아픈 병이다. 이렇게 아프면 먼저 생콩 3-5개를 씹어 비리지않고 이빨에 붙지 않으면 화기라고 한다. 화기의 치료에는 쥐며느리(Porcellio scaber) 3-5마리를 생채로 또는 약간 짓찧어서 아픈 부위에 덮어 주면 부은 것이 내리고 잘 가라앉는다고 한다. 쥐며느리는 염증을 없으며 진통작용이 있다고 한다. ‘종기’ 그리고 ‘생인손’은 이 화기라는 지역병을 백령도 주민의 어휘로 표현한 질병명으로 파악된다. 사용재료에 있어서도 공벌레와 쥐며느리를 혼동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쥐며느리는 같은 속(genus)의 공벌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벌레와 달리 몸을 건드려도 공모양으로 움츠리지 않는다. 백령도 주민에게 건드렸을 때 몸을 움츠리는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움츠렸다고 대답하였으며 따라서 이곳에서 사용한 재료는 공벌레로 보아야 한다.

34) ‘길쭉구이’는 ‘질경이(Plantago asiatica)’의 대청도 지역명칭이다.

2. 오줌소태 : ‘목대’

방광염이나 요도염으로 오줌이 자주 마려운 질환인 ‘오줌소태’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고수나 뱀싸리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대청도와 연평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청도와 연평도에는 고수가 없으며³⁵⁾ 뱀싸리는 있으나 약으로 쓰지 않고 마당비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전한다. 오줌소태에 약으로 사용했던 것은 옥수수수염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목대’라고 알려진 생선이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목대’는 홍어목의 바닷물고기인 ‘목탁가오리(Platyrrhina sinensis)’



<그림 2> 목탁가오리

를 일컫는 지역명칭으로, ‘박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동의보감에는 소변을 보기 힘들 때 가오리를 먹으면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어떤 종류의 가오리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섬 주민들은 아무 가오리나 먹는다고 오줌소태가 낫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목탁가오리어야만 한다고 설명하였다. 목탁가오리는 현재 더 이상 잡히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주민은 거의 없으며, ‘간재미나 홍어처럼 생겼는데 껍질이 상어처럼 두껍고 꺾끄러운 바다고기’로 통한다.

1) 대청도

- 오줌소태에는 ‘목대’를 고아 그 물을 마신다.
- 여자는 ‘숫목대’를 고아 먹고, 남자는 ‘암목대’를 고아 먹는다.

2) 연평도

- 오줌소태에는 ‘목대’를 거꾸로 쨌 것을 삶아서 먹으면 된다. 보통

35) 전승훈·석동임, 『백령도, 대청도의 식물상』, 1-14쪽.

생선은 머리부터 껍질을 켜는데, ‘목대’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꼬리부터 켜야 한다. 머리부터 켜면 약효가 없다.

3. 피부질환 : 해수(海水)와 소금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원보다 구하기 쉬운 것이 해수(海水)이다. 이 해수를 이용한 치료법도 다른 자원을 이용한 사례보다 많으며, 또한 해수로부터 나온 소금을 이용한 치료법, 간수를 이용한 치료법도 많다. 특히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육지에서는 밤나무 잎이나 닭 삶은 물, 닭 껍질, 닭 피를 사용한 사례가 많았던 반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에서는 해수와 그 변형물들을 사용한 치료법의 사례가 많이 수집되었다. 특히 연평도의 경우 피부질환 뿐만 아니라 소화기 계통의 질환에도 소금과 소금을 이용하여 만든 된장, 간장을 복용하는 등 소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1) 백령도

- 땀띠가 낫을 때에는 바닷가에서 수영 후 그대로 말린다.
- 무좀이 생겼을 때에는 바닷물에 들어가 수영 후 그대로 말리거나, 바닷가를 맨발로 걸어 다닌다.
- 아토피에는 바닷물로 목욕 후 그대로 말린다.
- 식중독으로 생긴 두드러기에는 아궁이 앞에서 끓은 소금으로 몸을 닦아낸다.

2) 대청도

- 무좀은 바닷가에서 가서 목욕하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 낫는다.
- 부스럼이나 버짐에 끓은 소금을 바른다.
- 두부를 만드는데 간수를 사용한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물을 두부초물이라 부른다. 두부초물로 목욕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 식중독으로 생긴 두드러기에는 끓은 소금으로 몸을 닦아낸다.
- 식중독으로 생긴 두드러기는 바닷물에 들어가 수영 후 그대로 말리면 낫는다.

3) 연평도

- 눈병에는 소금물을 따뜻하게 데워 환부를 닦아내면 낫는다.
-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긴 두드러기에는 화기가 있는 아궁이 앞에서 왕소금을 맨몸에 뿌리고 수수빫자루로 쓸어 내려 주면 낫는다. 두드러기의 원인을 진단할 때에는 생콩 한 알을 먹는데, 생콩의 맛이 비리지 않으면 음식을 잘못 먹어 생긴 것이라 판단한다. 쓸어내릴 때에는 ‘빫자루가 담이 들지 사람이 담이 드나’하고 주문을 외운다.
- 땀띠가 났을 때에는 바닷가에 나가 수영을 두 번만 하면 낫는다.
- 편도선이 부었을 때에는 조선간장을 뜨겁게 끓여서 입에 물고 있다.
- 다리가 아쁘면(신경통) 굵은 소금을 볶아서 환부에 대고 뜨거운 수건을 올려놓아 뜸질한다.
- 음식을 먹고 체하면 굵은 소금 한 숟가락을 먹는다.
- 토사곽란을 할 때에 된장을 물에 풀어 끓인 후 그 물을 마신다.
- 배어서 피가 나는 상처에는 소금을 환부에 뿌리고 형겁으로 맨다.

V. 서해 5도 민속의료 지식의 특징과 치료과정

1. 경험적, 임상적인 지식

‘주부’ 등과 같이 마을 안에서 일종의 가업으로 의료지식을 전수받는 경우는 직접적인 임상 경험과 문헌자료 등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는 주민들의 경우 직접 자신의 몸으로 실험해 가며 약과 요법의 효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하였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방식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갑자기 발생한 질환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보고 듣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약의 효험에 대한 비교가 진행되기도 한다.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특정 질환에 대한 체험하거나 보고 들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남는 특징도 있다. 이 공백으로 남는 지식의 경우 개인의 생애사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에 특정 질환이 없기 때문에 공백으로 남을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사례 4>에서 최○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쑥과 조뱅이의 지혈효과를 비교하여 조뱅이가 더 피를 잘 멈추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례 5>의 이○녀의 경우 타인의 일화를 통해서 발목을 빼었을 때 무장아찌를 짓이기어 환부에 바르는 것이 좋다는 지식을 습득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기 자신에게 시험해 보지 않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그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즉 소위 민속의료의 임상실험 과정에 참가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하여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6>에서 박○매의 경우 황달과 해수병, 그리고 그 외 다수의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는 자신이 매우 건강한 체질이어서 병을 앓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례 4> 2013년 7월 23일 백령도

정보제공자 : 최○후 (남. 1933년생), 문○윤 (남. 1954년생)

조사자 : 지혈을 하실 때요, 조뱅이 말고 다른 거를 쓰셨던 적은 없으세요?

최○후 : 조뱅이 말고 다른 것을 썼던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윤 : 우리 때는 쑥 같은 것을 비벼가지고 붙였는데,

최○후 : 쑥 같은 것을 비벼가지고 붙이기도 했지. 그런데 그 조뱅이가 제일 말을 잘 들어. 그거는 그냥 비벼가지고서 그 물 나오는 것을 싹 붙이면 그냥 지혈이 당장 되었어요.

<사례 5> 2013년 7월 14일 연평도

정보제공자 : 이○녀(여. 1929년생), 박○환(남. 1942년생)

이○녀 : 그 전에 여기 살던 최○칠네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 그랬는데 육지서 발목이 뻐는데, 무우가 약이라 해서 어드메 가니까 하나가 있더라나? 장배기(무 장아찌) 같은 거 그거 갖다 하니께 도지지도 앓더라구.

박○환 : 무 장배기래는 거는 무 장아찌.

이○녀 : 그런 걸 하나 있는 걸 갖다 해니께 도지지도 앓더라. 헌데 그건 해 보진 않았어. 그 소리만 들었지.

<사례 6> 2013년 7월 23일 백령도

정보제공자 : 박○매 (여. 1924년생)

조사자 : 황달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 안 나세요?

박○매 : 황달 안 걸려 봤으니까 알간.

조사자 : 여기 해수병은 많이 없었어요?

박○매 : 해수병 같은 거 난 안 앓아봤어. 나는 곱게 살았어. 병 하나 앓은 거 없고 손톱 하나 나간 것 없어.

2. 마을공동체 안에서의 치료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의 민속의료의 또 다른 특징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마을공동체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진단을 내리는 사람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안에서, 이웃, 그리고 마을 안의 의료전문가인 ‘주부(침놓는 사람)’나 ‘삼 잡는 아주머니’, 무속인으로 확장된다. 또한 진단에 따라 결정되는 치료법 또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부터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가정 안에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진행할 때에는 주로 집안에서 나이가 많은 여성이 의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로 ‘할머니’가 의사의 역할을 맡으며, 할머니가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전한다. 집 안에서 치료를 진행할 경우 장소는 주로 부엌의 아직 화기가 남아 있는 아궁이 앞으로,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생활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약의 재료가 되었다.

<사례 7> 2013년 7월 13일 연평도

정보제공자 : 최○자 (여. 1951년생)

놀다가 차꾸 두드러기가 나구.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나 이런데 그랬더니 그럼 나오너라 그래가지구. 아, 그러기 전에 생콩을 하나 먹어보라 그래. 콩을 먹으면 비려야 하는데 안 비리면 탈이 난거야. 할머니 안 비려 이려면 나오라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그 소금 있잖아요. 왕소금. 그냥 불 뎀 아궁지 앞에서 불이 약간 화기가 있을 때 앉아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쓰스스 닭아줘. 빗자루로. 수수빗자루 그거지. 쓰시던 거 탁탁 뺨에다가 털어서. 그거 옷 다 벗겨놓고 하는 거야.

<사례 8> 2013년 7월 25일 대청도

정보제공자 : 이○전(여. 1924년생), 최○원(남. 1933년생)

조사자 : 예전에 불거리 앓는 애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붓고 그런 애들.

이○전 : 쌍둥이 엄마의 침을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기 전의 침을 발라주고.

최○원 : 그런 것도 있었어. 자다가 모가지 아파도 침 발라주고서 낮게 해주고.

<사례 7>과 <사례 8>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행위가 진행되는 범위를 알 수 있다. <사례 7>의 경우 집 안의 가장 어른인 할머니가 손녀딸의 두드러기에 대하여 직접 진단을 하고 집의 부엌에서 치료행위를 진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례 8>에서는 불거리를 앓을 때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웃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부탁을 하여 환부에 적적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백령도의 경우 종합병원이 있었던 까닭에 매 번 위와 같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며, 병원과 보건소를 이용하기 힘들 경우에 이웃이나 무속인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을 <사례 9>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례 9>에서 손○서는 일차적으로 침을 놓는 동네 안의 ‘주부’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그 다음에 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주부가 육지에 나가 없고, 보건소와 병원의 사정이 좋지 않자 마지막에야 무속인을 찾아가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진단을 받은 후 보건소의 도움으로 병원 이용이 가능해지자 아이를 입원시켜 무속인의 치료법을 따르지 않았다.

<사례 9> 2013년 7월 24일 백령도

정보제공자 : 손○서(남. 1954년생)

우리 큰 애가 지금 37살인데 나가지고 한 이삼일 정도 되어가지고 (중략) 애가 울고 그냥 변도 못보고 그냥 막 저기하는 거야. 집에서 무슨 수를 써도 안돼. 주부한테 가니까 으덜 갔더라고. 육지로 나갔됐었다. 그랬어가지고. 다시 안고 와가지고 보건소 가니까. 보건소에 그때 소아과 의사가 있었어. 보건소장이 소아과 의사였어.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니까 뭐 저 연화리 거기 누가 목매달아 죽어가지고 거기 부검나갔다 그러더라고. 안되지. 그래 병원에 갈라 그러니까

입원실이 없다는 거야. 그래 안고 내려 온 거야. 누가 무당한테 가 보래. 근데 난 무당한테 가기 싫었어. (중략) 결국 우리 앞집에 그 판수 할머니가 인제 반무당 점쟁이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분을 이렇게 보니까 하는 말이 상문 꺾다는 거야. 상문에는 향나무 껍질로 목욕을 하래. (중략) 보건소장이 들어와가지구 그 말을 들었나봐요. 그래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니까 아니 전화가 이제 하는 소리가 입원 시키겠네. 아니 거기 입원실이 어딴냐 그러니까 아 입원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좋다. 그래서 병원에 자리 하나 낸 거예요. 인제. 병원에. 그래 거그 가지구선 그 갓난 아기니깐 그 닝게루 꼬즐 자리도 없잖아요. 이 겨우 찾아가지고 애들 놓는 게 없어가지고선 어른 거. 한 5일에서 일주일 난거 같애. 그래가지구 그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해가지구선 낮는데 한 5일 만에 내렸어. 그걸로.

VI.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인간 신체의 병리적 현상을 질문하고 치료법을 알아내는 문답의 방식과 환자 개인의 질병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치유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민속의료 연구에 생태적 환경을 덧붙여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가 진행된 백령도, 대청도 그리고 연평도는 한반도의 최서단 서해5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으로 서해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기후의 특징이 있다. 긴 안개일수와 습한 날씨로 인해 해소와 담 등의 질환이 잘 발생하고 이에 대한 치료법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섬 특유의 짠 음식으로 인하여 중풍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치료법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의료 환경에서 소외된 도서지역의 특징으로 인하여 출산과 산후조리에 대한 민속의료 사례를 많이 수집할 수 있었다.

연구지역에서 발생하는 질환과 질병 외에 주민들이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 역시 섬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육지에서는 지혈이나 오줌소태, 피부질환에 갑오징어뼈, 땀싸리, 닭 삶은 물 등을 사용하였던 반면, 이곳에서는 바다에서 얻은 목대와 바닷물, 소금, 두부초물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백령도 지역의 바닷물의 경우 청정하기 때문에 피부질환을 앓는 도시의 가족들을 위해 패트병에 담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섬과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속 의료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고, 듣고, 사용하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민속의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섬의 독자적인 환경과 독특한 경험으로 인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각 학문전문가들의 공조 하에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질병 및 질환의 지역명칭과 약으로 사용되는 동식물들의 명칭을 정리하고 실제 명칭과 맞는지 확인함에 있어서 민속언어학과 동·식물학을 전공으로 하는 인력의 필요성이, 질환 및 질병의 지역적 역학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의학 또는 지역사회보건학을 전공으로 하는 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실천하는 또는 하였던 의료행위가 미신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내에서 의미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전공자들의 능력이 사용될 수 있었으나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학문과의 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다른 학문과의 학제적 협력은 서해 5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민속의료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서지역의 민속의료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기상청 2012년 8월 월보.

_____ 2012년 연보.

디지털 서산문화대전. <http://seosan.grandculture.net/>

웅진군청 홈페이지 <http://www.ongjin.go.kr>

웅진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www.ongjin.go.kr/agriculture/>

웅진군지편찬위원회, 『웅진군지』. 경기도 웅진군, 1989.

_____, 『웅진군지』, 인천광역시 웅진군, 2010.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고전번역원.

2. 논문 및 저서

권이구·강지현, 「울릉도민의 1 차적 의료체계와 민간요법」, 『울릉도 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김성례, 「한국농촌의 전통의료문화와 그 변화의 수용」, 『인류학논집』 4, 서울대 인류학연구회, 1978.

박경용, 「원로 한의사의 의료적 실천과 문화적 함의」, 『인문과학』,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_____, 「채약(採藥) 민속과 민간의료-대구, 경북지역 채약인(採藥人)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76,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_____, 「산청(山淸)지역 민간요법의 실재와 전승양상」, 『실천민속학연구』 18(1), 실천민속학회, 2011.

_____, 「사찰민간의료의 전승유형과 의료민속학적 함의 - 전승스님과 치료경험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_____, 「생애사적 맥락을 통해 본 전통지식으로서의 민간요법: 단절과 변화, 지속의 메커니즘」, 『역사민속학』 38(1),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신동원, 「생명윤리와 종교: 한국전통의학의 의학윤리와 생명윤리 : 조선시대 의서

- 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 이재곤, 「경북동해안지방의 민간의료(1)」, 『한국민속학』 6, 한국민속학회, 1973.
- _____, 「경북동해안지방의 민간의료(2)」, 『한국민속학』 7, 한국민속학회, 1974.
- _____, 「경북동해안지방의 민간의료(3)」,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회, 1975.
- _____, 「경북동해안지방의 민간의료(4)」, 『한국민속학』 9, 한국민속학회, 1976.
- 이필영, 「개인의 피부병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치병의례」, 『민속학연구』 7(1), 국립민속박물관, 2000.
- 전경수, 「서남해 도서지역의 풍토병 : 의료인류학적 접근」, 『한국문화인류학회』 15, 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 전승훈·석동임, 「백령도, 대청도의 식물상」, 『전국환경기초조사』, 환경부, 1997.
- 정유석, 박일환, 유선미, 김기성, 정혜원, 심석규, 「고혈압환자의 전통의학 및 민간요법 이용」, 『가정의학회지』 19(2), 대한가정의학회, 1998.
- Carte, Brad. K., “Biomedica Potential of Marine Natural Products : Marine organisms are yielding novel molecules for use in basic research and medical applications”, *BioScience* 46(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nd American Institute of Biological sciences, 1996.
- Joffe S·Thomas R., “Phytochemicals: a renewable global resource”, *AgBiotech News Information* 1. AGRIS, 1989.

Abstract

Folk medicine in Five West Sea Islands Area of South Korea -Area-based Diseases and Natural Materials used in Folk medicine

Kim, Hyung-Woo•Lee, In-Hye•Kang, Young-Kyung•Jang, Jang-Sik•
Han, Ji-Won•Lee, Do-Jeong*

This paper is about the folk medicine in Five West Sea Islands Area of South Korea. Folk medicine is a traditional system of the disease prevention and cure passed down by everyday's practice and belief. In this study, folk medicine is analyzed by the geological, ec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lso by the pharmacological, psychiatric and magical methods. The usage of magical therapy is very rare compared with pharmacological or psychiatric methods because of Christian missionaries since early 19th century. The frequent area-based diseases are collated into 4 tables and the different therapies of same disease between the coastal and the inland area are summarized. In the end, the local features of folk medicine knowledge and the healing process

* Kim, Hyung-Woo(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Lee, In-Hye(Ph.D Candidate, Dep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Young-Kyung(Ph.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ang, Jang-Sik(Curator,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an, Ji-Won(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Lee, Do-Jeong(M.A. Student, Dep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analyzed.

Key Words : Five west sea islands area, Islands area in West coast of Gyeonggi, Folk medicine, Ethno
medicine in South Korea

교신 : 이인혜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E-mail : ideal5@snu.ac.kr)

논문투고일 2013. 08. 31.

심사완료일 2013. 10. 04.

게재확정일 2013. 10. 23.